

예술선물배달 '웃어요, 전주' 협력

전주문화재단, 사회복지시설 5곳 · 예술선물배달 참여 예술가 대표와 업무협약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예술선물배달 '웃어요, 전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주 시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5곳(금암노인복지센터, 금암노인복지관, 즐거운집 노인복지센터, 노인사랑노인복지센터, 남노송 동새뜰마을협동조합지원센터), 그리고 예술선물배달 참여 예술가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술선물배달 '웃어요, 전주' 사업은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사업으로, 2017년 첫발을 내디뎠다. 이는 독거노인을 비롯해 이동이 불편한 전주 시민, 즉 문화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에게 문화예술인이 직접 찾아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참여 예술인을 선정했는데, 전년 대비 지원율이 86.7% 증가했다. 모집 분야는 시각, 공연, 예술치유 분야로 총 13팀이 뽑혔다. 올해는 시설과 기관의 사전의견을 청취해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했다. 공연 분야에서 트로트 장르를 대상으로 추가하고, 예술치유 분야를 신설했다.

이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67만 관객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와 협약서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은 예술선물배달 '웃어요, 전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5곳(금암노인복지센터, 금암노인복지관, 즐거운집노인복지센터, 노인사랑노인복지센터, 남노송동새뜰마을협동조합지원센터), 그리고 예술선물배달 참여 예술가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즐거운집노인복지센터 송독열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소외계층인 재가 어르신에 대한 문화수혜를 넓히고,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예술선물배달 '웃어요, 전주' 사업은 수요자 관점으로 재단과 사회적

지기관 그리고 예술가의 협력과 연대가 빛어낸 사업이다"며, "삶의 현장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촘촘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가을에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FALLing in JEONJU'

내달 9~12일까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 전주남부시장 하늘정원 일대에서 열려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는 다음달 9일부터 나흘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과 전주남부시장 하늘정원 일대에서 'FALLing in JEONJU' (이하 '폴링인전주')를 개최한다.

매년 가을 전주 영화의거리 일대를 배경으로 열리는 '폴링인전주'는 그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특별히 화제가 되었던 작품을 선별해 상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주국제영화제가 발굴한 작품 상영과 부대 행사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영화를 매개로 모인 영화인과 시민 관객이 한 해의 성과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행사다.

'폴링인전주'의 개최 소식과 함께 올해의 포스터 또한 공개됐다. 행사가 열리는 계절을 감안해 따스한 색상을 활용하고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의 슬로건 '영화는 계속된다(Film Goes On)'를 무한대의 띠로 형상화했다. 객석을 단순화한 빨강 바탕에, 아가자기하게 묘사한 관객의 모습도 눈에 띈다.

올해 '폴링인전주'는 기존 상영관인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운영과 더불어, 영화제 기간 중 골목상업 공간으로 많은 관객의 인기를 끌

었던 전주남부시장 하늘정원의 야외상영을 추가 계획했다. 이들 야외상영작의 경우 전주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국제영화제, 시민의 생활 속으로 나아가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되겠다는 취지를 살리고자 관람료를 무료로 책정했다.

코로나19의 재 확산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방역 계획 또한 철저히 수립했다. 마스크 착용과 발열 여부 확인 및 손 소독제 사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과 같은 기본 방역 수칙을 모든 단계에 적용하고 행사장의 출입구를 일원화해 관객동선을 구성했다. 관객석은 기존 대비 50% 축소 운영되나, GV 프로그램 등과 같은 각종 부대 행사는 오프라인 개최를 기본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형식을 달리한다.

가을의 초입,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상영될 올해 폴링인전주의 프로그램은 총 6개 섹션 규모로 30편의 작품이 목록에 올랐다. 공식 상영작으로는 16편의 장편과 14편의 단편이 선정됐으며 여기에 오는 9월 정식 개봉을 앞둔 두 편의 특별 상영작을 더한 형태다. 이들 작품은 총 19회 차에 나누어 관객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폴링인전주'를 통해 제22회 전주국제

영화제 개막작 <아버지의 길>과 전주시네마프 로젝트2021 선정작 <노화친6411>, <포옹>, <아웃사이드 노이즈>를 다시 만나볼 수 있으며, 올해의 한국경쟁 대상 수상작 <성적표의 김민영>, 배우상(공승연) 수상작 <혼자 사는 사람들>, 국제경쟁 대상 수상작 <파편> 또한 상영작 목록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과 틸다 스윈튼의 만남으로 화제가 올랐던 <휴먼 보이스>, 드니 코테 감독의 신작 <공중보건>, 대위 쇼 감독의 애니메이션 <크립토투>,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흑백판+인플루엔자>, 세릴 두네이 감독의 <워터멜론 우먼>, 허정재 감독의 <첫번째 아이>와 최진영 감독의 <태어나길 잘했어> 등 영화제 기간 중 많은 관객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 모두 선정됐다.

14편의 단편 상영작 또한 장편에 못지않다. 제22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집중 조명했던 한옥희 감독의 단편선상을 비롯해 <오토바이와 햄버거> <나랑 아니면> <불모지> <파란거인> 등 한국단편경쟁 부문 수상작과 <스승의 날> <개정> <두번째 정제> <연인> <큐브>와 같은 지역 공모 선정작이 관객과 반기운 재회를 한다.

/양은경 기자

이윤승 사진전 '덕유산' 무주서 열려

27일부터 한 달간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전시관서

산악사진가 이윤승 사진전 '덕유산'이 8월 27일부터 한 달간 무주군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전시관에서 열린다.

(사)무주관광협회회장과 무주사진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작가는 국립공원 덕유산을 대상으로 담은 흑백과 컬러사진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기존 인화지 등에 프린트했던 방식을 탈피해 전주 전통 한지에 사진을 담았다. 한지에 인쇄된 산 능선과 운해는 수묵화를 연상케 하고 색다른 사진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 한지의 주재료인 닥나무는 고유의 결을 통해 이미지에 독특한 질감과 깊이감을 더한다.

이 작가의 사진은 덕유산의 신록, 운해, 태양 등 사계절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묘사했다.

사진학을 전공한 이 작가는 30여년 전부터 백두대간을 누비며 정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진에 담기 위해 산악사진가의 길을 걷고 있다.



덕유의 봄 이야기.

이 작가는 2009년~2017년까지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월악산, 주왕산, 속리산 등 30여 차례 산악전시회 그룹전을 가졌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 광주세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전시회 등 각종 국제대회 초청 산악사진 그룹 전시회 갖는 등 산악사진가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29일 '전통으로 노는 소리, 모다' 창단연주회

'전통으로 노는 소리, 모다'의 창단연주회가 오는 29일 오후 5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소리모다의 계절모다'라는 타이틀로 열린다.

'소리, 모다'는 전라북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이 전통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모여 전통음악의 소리를 모아 자신들만의 음악적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만들어진 도전적인 팀이다.

이번 공연은 시간의 흐름과 소중함을 사계절에 빚대어 각 계절별로 '소리, 모다'만의 색깔로 재구성한 민요를 선보인다.

연주회에서는 소리꾼 고소라, 조현정, 조민지와 가야금 김호빈 피리 배재현 장단 권지훈 대금 김효성 아쟁 김아름 등 총 8명의 젊은 국악인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한편 티켓 문의는 010-9118-7499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임실문화원, 문화가 있는 날 문화예술공연 진행

임실문화원(원장 김태진)이 25일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여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인다.

문화가 있는 날은 주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5일을 시작으로 9월 29일, 10월 27일 총 3회에 걸쳐 운영한다.

'흥이 있는 날, 끼가 있는 날, 음악이 있

는 날'이라는 주제로 예술동아리 공연과 전문 예술단의 초청 공연이 진행된다.

김태진 문화원장은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하고 즐기며 코로나로 우울하고 지친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연은 한 칸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임실=진충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